냉철한 지성, 따뜻한 가슴 지닌 영원한 신문기자

김성한의 **남구 멘토에 길을 묻다**

④ **전 상 수** 전 남구청장

'이 신문이 마지막 국제신문입니다. 독자여 안녕…'

1980년 11월 25일 신군부에 의해 국제신문이 강제 폐간되면서 발행한 마지막 신문 헤드라인 이야기를 꺼내자 내내 꼿꼿하던 그의 목소리가 잠기더니 그만 눈물이 그렁해졌다. 이 때문에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야 했다. "그때 퇴직금 받아 못하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질곡의 한국 언론사 산증인 국제신문 폐·복간 모두 경험

전상수 전 남구청장(2002~2006년), 반세기 가까이 신문기자로 살아온 그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여성 저널리즘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 新聞이 마지막 국제신문입니다 — 讀者여 안녕
創刊 33년 2개월25일 — 紙齡 제10 992호로 終刊
波瀾萬丈의 시대에 歷史의 記錄者임을 확신하여
愛讀者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는 全社員 告別人事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국제신문의 1980년 11월 25일 마지막 신문 1면. 이후 국제신문은 1989년 2월 1일 다시 복간했다.

여고시절 방학이면 고향인 의령 정곡면으로 갔다. 집성촌을 이룬 마을에 글 모르는 친척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고는 사랑채 한 칸을 빌려 우체국 다니는 조카와 함께 야학을 열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르자 글을 깨우친 아이들의 감사편지가 한 박스 수북이 쌓일 정도였다. 사회문제에 일찍 눈을 뜬 그가 신문기자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4·19의거가 있던 1960년 그 해 국제신문(당시 국제신보) 수습기자에 합격했다. 남녀불평등이 당연시 되던 시절, 처음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에 분노했다. "우연히 남자 동기의 월급명세서를 봤는데 저보다 월급이 2천원 많았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길가다 마주친 전무에게 수습시험 다시 쳐야겠다고 항의했더니 얼마 뒤 남자 동기와 월급이 같아졌어요."

40여년 기자생활 끝내고 민선 3대 남구청장 당선

당시 국제신문은 한강 이남 최대지로 세스나 취재 비행기를 소유 할 만큼 사세가 당당했다. 부산시청, 경남도청, 교육청 등 주요 행정관서를 출입했다. 날카로운 현장 기사는 때때로 지역 관가를 긴장시켰다. 언론인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발탁돼 얼마간 영국 유학도 다녀왔다. 영국 웨일즈 카디프대학에서 수학 중 노트 겉장에 쓰인 'color is different, the world is one (피부색은 달라도 세상은 하나)' 글귀는 세계를 보는 그의 눈을 넓혔다. 그때 경험으로 지금도 CNN과 BBC TV에 채널을 맞추며 지구촌 뉴스를 체크하고 있다.

백운포부지 확보 등 숙원 해결 공직사회 권위주의 타파 앞장

1980년 신군부의 언론말살 정책으로 국제신문은 강제 폐간돼 부산일보에 흡수통합 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해직 당했다. 다행히 부산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이어갔지만 절망의 고통과 상처는 컸다. 1989년 국제신문이 복간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이사 논설주간을 끝으로 40여년 기자 생활을 마감했다. 뒤이어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3대 남구청장에 당선돼 4년간 구정을 이끌었다. 당시 부산에서 첫 여성구청장이었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권위와 폐쇄성을 혁파하는데 기자 생활에서 얻은 현장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됐다. 남구 신청사 착공, 백운포 부지 확보, 평화공원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 이때 묵묵히 일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구청 직원들이 많음에 새삼 놀랐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늘 '청렴'을 첫손에 꼽는 그는 "잘못을 바로잡고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은 기자와 민주주의의 닮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수많은 산을 올랐던 그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 현재 부산여성신문 편집주간으로 지역 여성사회에 온기 어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영원한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50년 필객의 진심 어린 바람이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남구주민 초콜릿 선물 고마워요" 네덜란드 노병들 '감사 챌린지'

'참전용사 빼빼로 선물' 인증사진 찍어 남구에 보내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줘 고맙습니다. 초콜릿 선물도 너무 좋아요."

한국전 참전 네덜란드 노병들이 남구가 보내준 '빼빼로 선물세트'를 받고 감사의 사연과 인증 사진들을 보내왔다.

남구는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국가기념일 턴투워드부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참전용사 빼빼로 선물세트 보내기' 행사를 열고 있다. 턴투워드행사 기념일이 '빼빼로데이'와 겹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남구가 롯데제과에 제안해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빼빼로 과자와 마스크, 감사편지를 담은 선물상자 400개를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선물을 받은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이 보답의 의미로 '챌린지'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 남구에 보내온 것이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반호이츠 보병연대와 함정 1척을 파병했다. 보병연대는 미 제2사단에 배속돼 전투 도중 124명이 전사했고 그 가운데 120명이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생존한 참전용사들은 1977년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회(VOKS)'를 설립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반호이츠 부대가 있는 샤르스베르헨에는 한국전쟁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로 대를 이어 참전용사회를 운영하는 레오 슈뢰더르스(Leo Schreuders) 부협회장은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참전용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빼빼로 선물은 초콜릿이 아니라 감사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참전용사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올해도 롯데제과와 협력해 해외참전용사들에게 빼빼로 선물 보내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담당관 ☎607-6351

남구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3월 14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남구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30만원(오륙도 페이)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1일 기준 남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입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이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오는 3월 14일부터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구의 교복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구청 직원들의 급여에서 남은 우수리 돈을 모아 중학교 입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이어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단체, 기업들이 사업에 동참해 수혜자를 매년 늘려왔다. 그러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작년 2,004명이 교복지원 구입비를 지원받았고 올해는 2,144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육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한다.

평생교육과 ☎607-4831

유료광고
안마바우처는 건강 우리 지압원이 정답입니다.

• 우리지압원은 남구 최고의 1급 시설과 친절한서비스 의료보조기기, 족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국가공인자격증의 실력있는 지압 선생님들이 통증관리, 체형관리, 근육이완, 혈액순환으로 통증을 확실하게 줄여드립니다.
위 치 :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상담전화 : 051-626-7575
우리지압원 안마바우처 전문

유료광고
부산시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교육 취업희망자모집
부산시 지원(20기생 모집)
* 월수당 30만원 지급 * (선착순 모집)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수업내용	정원	자격
기계설계(CAD) -(2차원,3차원)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및실무) *수료 후 취업*	2022년 4월4일~ 9월18일	5개월 (10 : 00~ 4 : 30까지) *중도취업 가능	• 엑셀 자격증 및 실무 • 파워포인트 자격증 및 실무 • 캐드기초,실무 (자격증1,2급자격증) • 기계설계 및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사무요원 및 도면작성 및 수정 • 취업수당 20만원 지급	20명 (선착순)	만 18세 이상~ 연령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연령제한 없음 20명 모집(주부, 실직자, 고교 및 대학졸업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 출구, CGV(영화관) 옆, 임찬수 스피치학원 옆 801호

유료광고
★ 2021년 백년가게 선정 ★
SINCE 1990 제조허가 남위 94호
高先伊 발효 홍삼 구중구포

◆면역력·기억력·피로 회복·항산화효과◆
◆6년근(구중구포) 홍삼액 100%◆
◆녹용(뉴질랜드산) 취급◆
◆포스트유산균·프리바이오틱스·시저스◆
◆알티지오메가-3·콜라겐·산양유 단백질◆
T. 051) 628-6983 H. 010-9303-6983
부산 남구청 옆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정문 맞은편
★ 온누리상품권·동백전·전국택배 가능 ★

유료광고
어머니 학생 모집
국가지원 무상교육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수업으로
재미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로
소녀 시절 못다한 꿈!!
미용고등학교에서 펼쳐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위치 : 부암동(통학버스 운행)
어머니 중 학 생 (2년 졸업)
어머니 고등학생 (2년 졸업)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4

유료광고
촉탁의 : 준의원 / 협약병원 : 성모병원
해피실버타운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1~4(시설)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의료 서비스
◇ 물리(작업)치료
◇ 수시외래진료
◇ 집중간호
◇ 건강관리(월2회, 촉탁의)
◇ 건강검진(년1회)
◇ 처방약 복용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 치매예방프로그램 (실버체조, 인지·미술활동)
◇ 여가프로그램 (웃음치료, 민요활동, 색소폰, 통기타, 생신잔치, 절기행사, 원예활동, 족욕활동 등)
◇ 지역사회행사

착한 사람, 착한 마음, 착한 서비스로 가족의 자부심을 높여드리겠습니다.
☎621-5003~5004 부산시 남구 동명로 101번길 37-7 (용호1동 주민자치센터 뒤쪽)

유료광고
청송주왕산 쌀 산지직송
20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 취급품목 온누리 상품권, 신용카드 사용 가능
쌀, 잡곡, 기타 여러가지 국산 농산물
☎628-0362
010-9340-1065
오륙도페이 사용가능
남구 전 지역 배달가능
못골시장 청송상회